

충북도, 사회복지 이용시설 단계적 운영 재개

돌봄 공백 우려 · 무더위 쉼터 등 필요성 커져 20일부터 재개관 시설별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히 협조 요청

충북도가 취약계층 돌봄과 무더위 쉼터 운영 등을 위해 휴관 중인 도내 사회복지이용시설을 이달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한다.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면서 지난 2월 27일 보건복지부의 휴관 권고로 경로당,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휴관 장기화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 우려 및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한 무더위 쉼터 운영 등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재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7개 소관시설에 대해 운영 재개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데 따른 조치이다.
충북도는 14일 충북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보다 안전한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정에 보건복지국장은 사전준비사항과 비상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사회복지 현장과 지자체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운영 재개 여부는 인접 지역인 대전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여전히 계속됨에 따라 환자발생 동향이나 지역사회 상황을 고려하여 시·군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운영을 재개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

해서는 시설별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사회복지 시설 공통 대응 지침과 시설별 세부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경로당의 경우는 감염관리책임자를 모두 선임하고, 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체접촉 자제, 식사 제한,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 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도록 하는 등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세부기준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시설별로 공통 대응 지침과 세부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매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시군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전파 없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사안이나 만큼 방역관리를 통한 전파 차단과 의심환자 발생 시 즉각 대응에 지자체와 시설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전정에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확산 없이 돌봄 공백과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복지 현장에서 값진 땀방울을 흘리고 계시는 시설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설마 하는 작은 방심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개인이 방역수칙관이라는 마음으로 시설별 방역수칙은 물론 이용자 방역수칙도 빈틈없이 준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충북도 6월 고용률 전국 최상위권

OECD 기준 70%로 전국 1위... 전년 동월 대비 1.8%포인트 증가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0년 6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의 고용률이 OECD기준(15~64세) 전국1위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지난 5월 고용률(OECD기준) 전국 1위(69.9%)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 입에도 불구하고 2달 연속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통계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충북의 15세 이상 인구는 140만 8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천명 늘었고, 경제활동인구는 94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만 9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OECD기준(15~64세) 70.0%로 전년동월 대비 1.8%포인트 증가하여 전국 1위를 차지했다.
ILO기준(15세 이상) 고용률은 64.7%로 전년동월대비 1.1%포인트 증가하여 전국 3위로 나타났고,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 대비 0.4%포인트 감소하여 전국 3위(낮은순)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 상황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한 충청북도의 발 빠른 대처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긴급지원, 고용사각지대인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고, 프리랜서 특별지원, 운수업체 종사자 및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영세농가 및 공연예술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

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FTA 자문관 활용 현장지원사업 등 중장년 고용 지원사업, 생산적 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 등을 대대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를 위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 등 온라인 진출 지원, 소상공인 마케팅 비용지원 및 수출기업 비대면 상담 마케팅 지원 등 특별대책이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었다는 평가다.
또한, 충북도에서 GRDP 전국비중 4% 달성을 위한 동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지향형 전략적 투자유치 및 수출 기업 육성을 위한 충북형 경영 등 충북 경제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온 것이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고용률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된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웠던 각종 일자리 사업은 하반기에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추진하되, 가능한 집합·행사 위주 사업을 비대면 사업 위주로 발굴·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생활방역, 긴급공공업무 지원 등 10개 분야, 407억원)을 비롯해 여성·청년·노인·장애인 등 분야별 일자리사업(159개)에 3,173억원을 투입하여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북적십자사, 지역아동센터에 희망드림박스 전달

감염 예방용품 3000개 기탁 아동들의 코로나19 극복 지원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도내 지역 아동센터와 함께 아동들의 코로나19 극복을 돕는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6일 충북도지사 집무실에서 ‘희망드림박스’ 3,000개(100백만원 상당)를 충북지역 아동센터연합회에 전달했다.
이시중 충북지사와 김경배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 김진현 충북지역 아동센터연합회장이 참석했다.
희망드림박스는 손소독제와 줄넘기, 간식거리 등 감염예방 및 생활용품들

담았으며, 지역아동센터에 통해 돌봄이 필요한 도내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 등 통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 지사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동들을 위해 애쓰시는 충북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대한적십자 충북지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아동들이 꿈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배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이 6일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진현 충북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에 도내 아동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드림박스를 전달하고 있다.

충북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시행

407억원 투입... 11개 시·군서 291개 사업 9327명 인원 모집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희망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생계 지원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국비 포함 총 407억 원을 투입해 291개 사업 9327명의 인원을 모집하는 대규모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사업내용은 생활방역 지원, 농촌경제활동 지원, 공공휴식공간 개선, 지자체 특성화 사업 등 10개 유형으로 진행되며 지역경제 회복지원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공공분야 긴급 일자리로 도내 11개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질 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우선 선발한다. 참여희망자는 신분증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해당 시군 일자리 부서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는 사업별 장소에서 주 15~40시간 근무하게 되며, 월 67~180여만 원(시급 8,590원)의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모집 일정 및 사업내용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일자리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도 코로나19 극복 · 경제회복 총력”

이시중 충북도지사, 383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서 소신 밝혀

충북도가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시중 충북지사는 8일 제383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올 하반기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설명하면서 이 같은 소신을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상생

활에 불편은 물론 사상 초유의 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이어 하반기 충북도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면서 올해 서민경제와 기업 활력에 도정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고 강조했다.

도의 하반기 주요현안 추진방향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충북형 뉴딜사업’ 적극, 국가적 아젠다로 자리잡은 강호축 개발, 오창 다목적 방수광기속기조기 구축,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되기 쉬운 복지 사각지대 관심, 문화·체육·관광행사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아래 소규모 재개 또는 비대면 개최 등 방안 강구, 지역·계층·도농 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우리마을 뉴딜, 올해 및 장기간 대규모사업 예산 조기집행 등 충북형 뉴딜사업 본격 추진하고 생산적 일손봉사

당 당초목표 14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로당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비대면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어린이집 통합차량 영유아보호용 카시트 설치사업과 발달장애인 GPS 위치표시 장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 지사는 “2020년 4% 충북경제 달성과 2030년대 5% 충북경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공공기관·연구소·기업체를 유치와 함께 세계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도의회가 적극앞장 서 줄 것을 정중히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 255-0504, 253-0504 FAX:(043) 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hanmail.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복사-출력 및 제본의 명가

진천군, 복지서비스 최적화 앱 개발

'생거진천 노인 통합돌봄 앱'... 서비스 누락·중복 예방 QR코드 활용, 시간·예산 절약... 접근성·편의성도↑

충북 도내에서 유일하게 통합 돌봄 선도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진천군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거진천 통합돌봄 앱(app)' 개발에 나섰다.

14일 군에 따르면 찾아가는 보

상자를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및 예산도 절약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서비스 질 향상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R코드를 활용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각 가정에 방문하는 복지·의료 전문가들이 대상자 가정에 부착돼 있는 코드를 인식해 어르신들이 언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체크가 가능하다. 또 어떤 대상자가 본인이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를 손쉽게 신청도 가능해 복지서비스 접근성도 크게 향

상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6월,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앱 개발을 시작했으며 읍·면, 보건소,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등과 좀 더 완벽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지속적인 회의를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앱 개발을 이달까지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며 막바지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맞손'

법체계 마련·정책 추진... 아동학대 예방·조사 등

진천군은 20일 진천군청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송기섭 군수를 비롯해 김성우 진천군의회의장, 진천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직무대리 박인수 경감, 박창호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정호 진천소방서장, 류경희 굿네이버스 충북본부장, 유혜영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장, 김선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장 등이 참

석을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진천군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시를 조성하고 진천군의회는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마련과 아동정책 추진을 지원하며 진천경찰서는 아동학대 예방·조사와 아동안전을 위한 기초질서 계도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진천교육지원청은 아동친화도조사·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교육 추진에 협력하고 진천소방서는 아동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환경개선 및 아동안전교육에 협력하기로 했다. 굿네이버스 충북 본부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및 캠페인 활동에 협력하고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아동권리교육에 협력하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는 아동옹호활동 및 긴급지원분야에 협력하기로 했다.



진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주시, 초·중·고생 1인당 40만원 지원

지역 학생 2만천여명 혜택 전망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권 침해 등 피해가 심각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인 1인당 40만원의 긴급 돌봄지원금을 지원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14일 충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95억 원 규모의 제2회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충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추경에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초·중·고 및 특수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특

학생들을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자 우리 마을 뉴딜사업에 해당 내용을 중점 편성했다. 총 83억 원의 돌봄지원금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둔 학생 2만 1000여 명이 수혜대상이며, 전국 최고 수준인 학생 1인당 4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또 우리마을 뉴딜사업은 461개 사업, 94억원으로 주민 불편 해소와 함께 일자리 창출까지 고려했다. 이 밖에

도 희망 일자리 사업 55억 원, 전 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5억 원 등 정부 추경도 함께 반영했다. 시는 이번 추경에 소규모 재원을 추가 세입 없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 호수축제, 우륵문화제 등 주요 행사의 취소·축소를 조기 결정하고, 업무추진비, 여비 등 각종 경상경비 10% 이상을 절약하는 등 총 131억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음성군, 저소득층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음성군 보건소는 저소득층 영

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 필수제인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영석 사회복지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편집고문 겸주필 김춘길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ssn@naver.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고 14일 밝혔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총 171명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신청했으며 지원금 지급액은 약 5천658만원에 이른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와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인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

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유선산상 등의 이유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며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한다.

단양군 이동 푸드뱅크로 '영양·건강 챙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13개 기관 150여명 참여

단양군이 1일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이동 푸드뱅크'를 운영한다.

이동 푸드뱅크에는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종합센터, 노인복지관, 단양나눔과 기쁨 푸드뱅크 등 13개 기관 150명의 직원과 봉사자가 협력하게 된다. 단양나눔과 기쁨 푸드뱅크는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며 군 자원봉사센터는 선별·소분 작업과 배달지원을 군 협의체는 읍·면 거

점지역 배송을 읍면협의체와 노인복지관은 각 가정에 배달을 담당하게 된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배분장소와 거점지역에 냉장·냉동시설을 설치해 식품 제공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총출한 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지역 푸드뱅크 대상자 669명은 질 높은 이동 푸드뱅크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양군 민·관이 함께하는 '이동푸드뱅크'를 위해 새마을회 회원들이 희망키트를 만들고 있다.

제천시, 충북 최초 임신부 '원스톱 서비스'

'맘(MOM) 편한 임신'... 기관별 서비스 통합·편의성↑

제천시보건소가 20일부터 충북 도내 처음으로 '맘(MOM)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 맘(MOM)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에 선정되며 추진한다.

정부24(http://www.gov.kr/portal/main) 사이트 맘(MOM)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메뉴에서는 각각의 기관에서 지원하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이곳에서 제천의 임신부들은 지역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그 동안 임신부들은 임신 진단 후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각각 알아보고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원스톱 시스템 도입으로 임신부 본인이 입력한 지역정보와 임신정보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서

비스 목록이 자동으로 추출되고 소득과 임신정보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관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희망자에 한해 임신부 영양제 연산제, 철분제와 임신부 주차 등 현물지원 물품을 택배(배송비 착불)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직장생활로 바쁜 임신부나 가족의 불편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임신부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 한부모 모자 가정 '스마트안심터치' 지원

제천시는 저소득 한부모 모자 가정 여성을 위한 '스마트안심터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제천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무단 주거침입, 성폭력 등의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 생활망 구축으로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작년 여성 1인 가구 및 1인 가정 스마트안심터치 300개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저소득 한부모 모

자가정 250가구에 지원한다. 스마트 안심터치란 위급상황 발생 시 터치하는 비상버튼이 장착된 핸드폰 거치대며, 비상버튼을 누르면 비상메시지·위치정보·현장상황 녹음파일 등이 사전에 등록된 5개의 전화번호로 전송된다. 특히 올해부터 시청 CCTV통합관제센터와도 연결돼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더욱 신속히 범죄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

6월 푸드뱅크·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 충북광역푸드뱅크 (주)에스엔푸드, CJ산선 진천센터, GS리테일 발안물류센터, 롯데칠성 광명센터, CJ나눔 개롱센터, CJ수원반포센터, 대상 양지센터, 대상 용인 자운센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농협, 충북낙농농협, 나눔축산운동본부, 중원랜드, 한우협회, (주)파낙산, (주)대승푸드, 롯데푸드, 체리부로, CJ유통(충청점), 송림푸드, 청주유통, 예버리치, CJ산선 덕평센터, 롯데칠성 대전센터, 중앙제과(주), 롯데네슬레 청주공장, LG생활건강, (주)엘로드림, 송림푸드, 대상 덕평센터, 시아스 청주공장, 영농법인 무지개농장, (주)더불어, (주)피아씨푸드, (주)금강B&F, KGC인삼공사 충북지점, 투쟁물류, 침맛식품, 리온알에스, 주식회사 지지코리아
- 청주흥덕기초푸드뱅크 동양오츠카충청청주지점, 롯데제과(주)청주영업소, 마늘보쌈, 설악주어탕, 좋은아침, (주)계기씨푸드, 명동보리밭, 삼육유유서부대리점, 좋은아침, 피자헛 청주대점
- 청주사랑나눔푸드뱅크 참조은유통, 델리스(분평동), 백설유통, 홀몰러

- 스익스플러스, 좋은아침(가경점), 파리바게뜨(개신점), 파리바게뜨(북대점), 바나나, 좋은아침(북대점), 두레주르(비하계동점), 단킨도너츠(강서점), 팡스팡스, 롤링핀(지월시터점), 이츠굿해이커리, 금관마트, 동청주오뚜기, 초이스베이커리, 플로리안, 좋은아침(성안점), 좋은아침(성화점), 파리바게뜨(가경대우), 청도너츠, 바로구은빵, 도담영농조합법인, 청풍명월, 명성물류, 머거바식품, 자연솔푸드, 무드클로리, 한솔, 비전상사, 태성우수, 도담, 등고개농장, 제운유통, 장수유통, 오뚜기대리점, 중앙제과(주)
- 청주드림푸드뱅크 파리바게뜨(원평점, 분평우성점, 금천부영점, 산남점, 농협하나로점, 용암효성점, 용암현대점, 건영점, 뉴타운점, 율랑칸타빌점, 율랑점, 개신점), 수암골 영광의제인, 좋은아침 오송점, 서문우등, 용암서문우등, (주)떡과풍경, (주)민영, 김대협해이커리
- 청주제일푸드뱅크 청주제일교회, 한기장복지재단, (주)한백식품, 두레주르 율랑점

- 청주새영푸드뱅크 좋은아침오창점, 파리바게뜨쌍용점, 두레주르한라점, 두레주르산일단지점, 기문출날, 그린하우스과자점, 오정출마트, 자갈치 민속떡집, 찰떡궁합, 광주기독교서점, 전원푸드락, 낙원떡방
- 청주구세군푸드뱅크 주식회사 시아스, 두레주르 금천점지점, 파리바게뜨 분평점, 한솔 제2농장, 공천떡집, 금관할인마트, 해신수산, 두레주르 금천뉴타운, 따베오 베이커리, 행복8떡집, 유산떡방,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떡이랑, 두레주르 청주용정점, 파리바게뜨 청주용안역일점, 영농조합법인 희어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청주용안점, 천명영농조합법인, 정수기회(후생사), (주)월드이십일메이치규, 자연연합영농조합법인, 천명, 김가네 생고기정육점,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주주떡, 서울우유치즈, 시아스유통, 두레주르 분평점, 목향정, 금관할인마트 율랑점, 청주특남(주), 무외에 두와
- 청원기초푸드뱅크 (주)우리농, 신과들F&C, 파리바게뜨 오정중앙점

- 증평군푸드뱅크 거림기계, GS슈퍼 증평점, 케이하우스, 금호솜 불갈비, 서산식품, 좋은아침 율랑점, 파리바게뜨 내수점, 한그루식품, 오뚜기, 단비상사, 단킨도너츠 증평점, 델리칸 증평점, 그린유통, GS25 증평대리점
- 괴산군기초푸드뱅크 진미식품, 괴산잡곡, 신선노도, 신선촌, 운산식품, 제중당약국, 풀무원, 세미숙, 유인숙, 장국희, 따베오베이커리, 두레주르괴산점, 파리바게뜨괴산점, 매키로통상, 미미식품, 한살림축산식품, 주식회사이커리
- 옥천군푸드뱅크 두레주르 엘마트점, 구가네 농이보강, 조마루 갑지탕, 독도가든, 행운목, 미가(한정식), 이가화로, 옥천청담로타리클럽, (주)한일푸드
- 영동나눔푸드뱅크 두레주르(김홍옥), (주)벤유평가공
- 보은군기초푸드뱅크 (T, 543-6255) 서울우유(보은점), (주)서해물류, CJ나눔재단, 롯데

- 대일(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음성군푸드뱅크 CJ푸드빌, 꽃피는아침마을, (주)다농원, 삼원농장, 영양떡방앗간, 김이박부대찌개, 단킨도너츠(금양), (주)이지어연면, (주)후드원, 김점철소머리국밥, (주)맑은해오름, (주)풀무원, (주)맑은식품
- 진천군푸드뱅크 삼진푸드, 두레주르(성모병원점), 면사랑, 체리부로, 조인, 목우촌, 동원(이천,백암), 삼육두유, 파리바게뜨(덕산점)
- 진천나눔과기쁨푸드뱅크 파리바게뜨 진천장관점, 태남 메디스코, 신토식품, 윤지영, 김정식, 리브가왕만두떡방, 김수혁, 델리칸(이월점), 에스엔푸드, 자혜식품, 명기떡집, CJ푸드빌, 해마로푸드서비스, 파스쿠찌, 행복한 떡집, 이삭식품, 명가떡집, 생거진천식품, 맑은해오름
- 충주기초푸드뱅크 고인물식품, 대하유통, 델리칸충주교현점, 떡보

- 의하루, 두레주르 주덕점, 롯데제과(주)충주영업소, 삼성청와유통, 삼일상회, 서울우유치즈충주대리점, 유원유통, 육사정과, 은혜정과, (주)미림농산, CS코리아, 자미원에프앤지, 충주청과, 하나로베이커리(충주점), 한아름정과
- 제천시푸드뱅크 건국유업, 두리메리케, 롯데제과 제천, 박달재씨푸드, 문유통, 씨알푸드, 오뚜기 제천점, 오뚜기, 태성김치, 푸른촌, 풀미라인, 365할인마트, 크리스크리프제천중앙점, 호수상사
- 단양군푸드뱅크 진천면사랑, 진천(주)푸드, 음성CJ, 음성(주)진천, 충주김치나라, 제천푸른촌, 롯데칠성, 일죽청정원, 제천씨알푸드, CJ 진천, 단양(주)정풍, 단양두송식품, 서울우유 단양대리점, 파리바게뜨 단양대리점
- 단양나눔과기쁨기초푸드뱅크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광주파리크라상업체, 신선초, 하림, 맑은식품, 한돈, 썬데이푸드, 대상청정원

괴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팔 걷어

경찰서 등 유관기관 8곳 협약
정보공유·심층검사·사례관리
연합캠페인 등 협력 시스템 구축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군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군내 유관기관과 지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센터는 지난달 25일 군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동참한 지역 내 기관은 모두 8곳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해 괴산경찰서, 괴산드림스타트, 괴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괴산장애인복지관, 괴산청소년문화의집, 괴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괴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괴산증평교육지원청(Wee 센터) 등이 합

께 맞손을 잡았다. 이들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체계적인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제공과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견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기관 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관심 아동·청소년군을 대상으로 심층 검사 및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문제가 발견되면 연계 치료를 위해 센터에 등록시켜 꼼꼼한 사례관리도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은 통합사례회의를 열어 효과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정신건강 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한 연합캠페인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강인 센터장은 "아동·청소년의 복합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치료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옥천군 결혼정착금 500만원 지원

각 읍·면사무소 접수... 예비부부 전입 증가 기대

옥천군은 이달부터 결혼정착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에서 실시하는 인구 전입시책 사업 중 하나로, 옥천에 거주하거나 전입하려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군은 2019년 12월 옥천군 인구 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

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2억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자 기준은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가 모두 계속해서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49세의 남녀이다. 지원 금액은 한 부부당 500만원이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 최

초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을 지급한다. 단, 혼인신고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 지자체로 전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혼인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부부 모두 결혼정착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최근 늘어나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국적 취득 후 1년 뒤 최초 신청이 가능하다. 옥천군에서는 이 정책을 통해 결혼을 앞둔 많은 예비부부가 관내로

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중 군수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함은 물론, 청년층의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를 늘리고 청년이 정착하기 좋은 옥천을 만들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사업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은군 취약계층 구강진료 서비스

치과 의사 방문 검진·교육

보은군보건소는 취약계층의 치아건강을 위해 구강전담공공보건 의사가 주치의로 나서 공공실버주택 입소자와 방문보건사업 대상자에게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구고령화로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치주질환, 치아상실로 삶의 질이 떨어져 노년의 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에 따

라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건강취약계층을 치과 의사가 직접 찾아가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잇몸 마사지를 비롯한 틀니 세척, 올바른 잇솔질법, 틀니관리법 등을 교육해 구강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한 주민은 "치과 의사가 직접 방문해 잇몸 마사지 받고 구강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니 새삼 치아건강의 중요성을 실

감하게 됐다"며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치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순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구강보건사업 공백이 길어짐에 따라 건강취약계층인 방문보건대상자와 공공실버주택 입소자, 재향방문대상자를 우선해 진료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군민의 구강질환 예방 등 보건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영동군 소통기반 보육서비스 '눈길'

코로나19로 인한 원아·학부모 걱정 덜기 집중

영동군이 코로나19에 대응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지원과 소통의 보육정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해소하고자 16개 어린이집들과 합쳐 보육현장을 공유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어린이집 등원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영유아들을 위해 '월간 학부모 소식지 발행', 'SNS 가족사진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해 아동과 학부모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급식사고에 대비해 매일 식단

표와 아동급식사진을 직접 찍어 키즈노트, 블로그, 밴드 등에 적극 공개하고 있어 학부모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출산율이 낮아져 어린이집 원아수도 점점 감소되는 추세에 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학부모들과 다각도로 정보 공유를 실천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일상생활에 제한을 주고, 불안요소를 하나 더 만들었지만, 영동군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보육정책은 더 단단해져 서비스 품질이 더 높아지고 있다.

군정방침인 '복지의 맞춤형'에 맞춰 아이는 물론 부모와 보육교사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어린이집을 만들려는 군의 소통은 지속되고 있다. 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25% 이상으로, 환경변화에 민감한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선진보육서비스 전파가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아이키우기 좋은 영동만들기' 다각도로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영동군 학생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7420여명에 선불카드 형식... 8월 14일까지 접수

영동군이 군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취학 아동과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군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취학 아동부터 초·중·고·대학교 재학생까지 총 7420여명에게 13억7천300여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미취학아동·초등학생 10만 명, 중학생 15만 명, 고등학생 20만 명, 대학생 30만 명이 지급된다. 각 읍면사무소에 별도 지원 창구가 마련됐으며, 안내요원과 당

당공무원이 비치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군민들의 재난지원금 신청을 돕고 있다. 현장에서는 신청 후 즉시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어 효율성과 주민 편의가 높아졌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군민생활이 다시 한번 활력을 찾을 예정이다. 군은 17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정해 군민들의 적기 신청을 독려하고, 이후 8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증평군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발대식

'아이모션' 29명 위촉장 수여

증평군은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굿네이버스 충북본부(본부장 류경희) 함께하는 증평군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아이모션'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서는 모니터링단 위촉장 수여, 굿네이버스 소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활동 안내가 이뤄졌다. 위촉된 단원은 총 29명으로 초등학생 9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5명이다. 모니터링단은 굿네이버스 소속 대학생 멘토와 함께 아동의 군정 참여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주요 활동은 아동 권리 침해사례 실태조사, 캠페인, 토론회, 정책 제언 전달 등이다. 홍성열 군수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권리를 군정에 실현하겠다"며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친구들과 함께 아동친화도시 증평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굿네이버스 충북본부 류경희 본부장은 "아동권리가 군정 전반에 반영되어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증평군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아이모션' 발대식에서 홍성열 군수가 단원 어린이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증평복지재단-꽃동네대학 공동발전 협약

사회복지분야 정보 교류·프로그램 개발 등 협력

(재)증평복지재단(이사장 연기봉)과 꽃동네대학교(총장 황선대)는 1일 증평복지재단 회의실에서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분야 교육 및 연구 협력'을 위한 공동발전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복지 분야 연구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조사, 지역 맞춤형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복지 분야 공공정책 개발 및 자문, 학생 실습 교육 및 봉사활동에 관한 협력 등에 힘을 모은다.

연기봉 증평복지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평복지재단은 증평군청소년수련관, 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증평군장애인복지관, 증평군노인복지관, 증평노인전문요양원 5개 시설을 증평군으로 위·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증평복지재단은 재단 회의실에서 꽃동네대학교와 사회복지분야 교육·연구 협력을 위한 공동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15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00,000

계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한국판 뉴딜... '일자리 190만개 창출'

디지털·그린·고용 3축...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입 포스트 코로나 국가발전전략 규정... 세계 경제 선도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위기를 기회 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중립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7000

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비 114조1000억원, 지방비 25조2000억원, 민간투자 20조7000억원으로 구성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삼았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58조 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400여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한 다.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

로 회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화에 나서고, 1·2·3차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한다.

디지털 '비대면 산업'은 육성한다.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Doctor Answer 2.0)을 갖춘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도로·항만 등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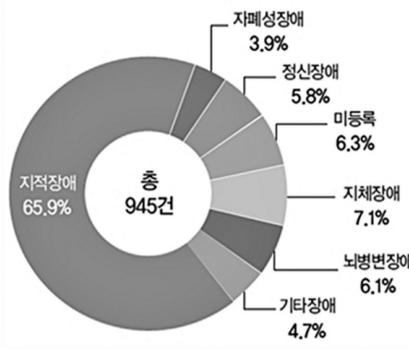
"그린 뉴딜"에는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천개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에너지화에 나선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000개를 만든다. 먼저 고용안전망 분야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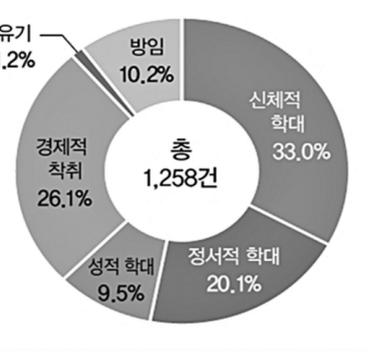
또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이런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2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늘린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8천억원을 투자한다.

<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별 비중 >



< 장애인 학대 유형별 비중 >



작년 장애인 학대 가해자 21%는 거주시설 종사자

피해 장애인 96.4% 중증... 신체적 학대 33% 가장 많아

지난해 장애인을 학대한 가해자 가운데 장애인들이 머무르며 생활하는 거주시설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행위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많이 발생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펴낸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총 4376건이었다. 2018년(3658건)과 비교하면 19.6% 증가한 것이다.

학대 신고 가운데 43.9%인 1923건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혹은 경제적 착취 등이 있었다고 의심된 경우였다. 이중 학대가 인정된 사례는 945건이었고,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

거가 부족한 이른바 '잠재위험' 사례는 195건이었다. 나머지 783건은 학대가 인정되지 않았다.

학대 판정 사례 945건을 보면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496명 이었고, 여성은 449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176명), 40대(167명) 등의 순이었다.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163명으로, 전년(127명)보다 28.3% 증가했다. 피해 장애인의 주된 장애 유형을 보면 지적장애가 623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 67건(7.1%), 뇌병변장애 58건(6.1%) 등이 뒤를 이었다. 주된 장애뿐 아니라 부 장애까지 포함한 발달장애의 경우 총 680건으로, 전체의 72.0%였다.

피해 장애인의 96.4%(853건)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이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장애인과의 관계를 보면 장

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198건(21.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인(173건·18.3%), 부모(113건·12.0%)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이용시설, 교육·의료기관 등 기관 종사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모두 합쳐 321건(34.0%)이었다.

학대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310건(32.8%), 장애인 복지시설이 295건(31.2%)으로 장애인이 주로 머무르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가 64.0%에 달했다. 최초 학대가 시작된 때부터 학대 행위가 발견될 때까지 기간을 뜻하는 '학대 지속 기간'의 경우 3개월 미만인 349건(36.9%)으로, 3분의 1 이상이었던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총 1258건 가운데 신체적 학대가 415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착취 328건(26.1%), 정서적 학대 253건(20.1%), 방임 128건(10.2%), 성적 학대 119건(9.5%) 등이 뒤를 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올해보다 1.5% 상승... 월급 환산시 182만248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

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



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은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

~9,110원(인상률로는 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안을 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2025년 완성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2025년 완성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관한 브리핑을 열어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2025년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누구나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약 2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0만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2022년에는 전체 가입자를 1700만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면 보험료 산정 기준을 임금기 아닌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등 제도 전환을 재설계

해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조치의 우선 대상은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이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올해 안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일하다가 다치면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아동이 행복한 나라' 5개년 계획 수립

아동권리 보장·균형발달 지원 등 정책 발굴 의지

정부가 향후 5년간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목표로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관련 법부처 정책조정 기구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17일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 추진전략을 논의하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2차 기본계획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4가지 전략을 담는다. 위원회는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도가 낮은 편이며, 아동의 삶의 만족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 시 최하위권"이라며 "이는 아동권리인식 지체, 과도한 학업 경쟁, 사회경제적 격차 지속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이 낮은 행복감은 성인기로 연결돼 개인 전체 삶, 나아가 사회·국가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아동 중심'을 체계화할 수 있는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기본계획 세부실천 과제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한다. 이날 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아동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혜미 위원(아동권리보장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의 위축, 대면 접촉의 최소화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UN아동권리협약상 주요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봉사단 위촉 기준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 봉사활동 분야

구분	내용
기술·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기능전수 등
상담·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동·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예술	음악, 연극, 무용진행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학습	나눔·경제교육,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행정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노력봉사, 청소년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의료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입무보조 등
교통·환경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4. 봉사단 혜택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중복지원 불가, 충북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참석)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5. 신청 및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김민지 코디네이터

전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용자 폭행·폭언 이렇게 대처하세요

청주복지재단 '사회복지종사자 위기관리 매뉴얼' 제작 실무자들 자문 참여... 청주지역 무료로 배포 예정

이용자들로부터 폭행·폭언 등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대응 매뉴얼이 나왔다.
청주복지재단(이사장 한범덕)은 복지종사자의 위협예방과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안전보호체계 구축사업인 '함께 가

드(Guard)라'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을 위한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을 제작·발간했다.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을 위한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제작됐으며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 구축, 법적 대응요령과 대응

체계, 폭력피해 발생 후 지원사항 등을 4장으로 나눠 일목요연하게 담았다.
부록으로 종사자 위기대응을 위한 기관의 필수조치 체크리스트·위기대응에 대한 예방전략 체크리스트·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척도 등을 실었으며 범죄신고와 법률상담, 정신건강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긴급연락처도 수록했다.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을 위한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제작에는 김경희 꽃동네대학교 교수와 안

종태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편집위원을, 박재성 법률사무소 직지 변호사·손정우 충북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전문자문을 맡았으며 청주시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에 근무 중인 13명의 실무자들이 실무자문에 참여했다.
청주복지재단은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을 위한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을 청주시지역 사회복지기관·시설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와 충북주거복지센터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들이 2일 저소득 가정 학생의 공부방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공부방 환경개선 추진

충북주거복지센터사회적협동조합과 환경지원 업무협약 3년 동안 3가정씩 9가족 선정... 안정된 학습환경 조성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화정)는 2일 충북주거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덕수)과 저소득가정 학생 공부방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두 기관은 협약식을 통해 도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생 중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공부방

환경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부방지원사업'은 매년 3가정씩 3년 동안 9가정을 선정해(1천 800만원) 친환경 벽지·장판 등을 사용, 아이들의 공부방 환경을 개선하고 책상과 의자 등을 통해 안정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는 2019년부터 주거복지지원사업으로 1억 원 상당의 후원을 받아 복지사 각지에 있는 저소득 26개 가구를 대상으로 주방 대리석 싱크대와 식탁, 가스렌지를 교체해 주는 주방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화정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안정된 학습 환경속에서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중장년 일자리 창출 '앞장'

충북경영자총협회와 업무협약 재취업 기회 확대·복지증진 도모

충북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이하 협의회)와 충북경영자총협회(회장 윤태한)가 20일 지역사회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의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사회복지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중장년층의 재취업 기회



충북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중장년 일자리 창출 기여와 사회복지 취약계층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북경영자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확대와 지역 내 복지증진 도모 등 양 기관의 발전에 필요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협약 체결하게 됐다.

김영석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청년부터 노년까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맺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충북경영자총협회와의 협약이 협의회가 진행 중인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 전문 인력이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기업 등에서 자신의 경력 및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매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 중이다.

충북도, 자살 고위험군 발굴·집중관리 강화

경찰·소방·의료기관 등 일선 네트워크 재정비 자살시도자 대응 위한 24시간 상시지원체계도 구축

충북도는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사회적 고립감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살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도는 자살자 수를 감소시키려면 자살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해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먼저 자살시도자, 유족 등 고위험군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경찰과 소방, 의료기관 등 일선 네트워크를 재정비한다. 매뉴얼 정비, 비상연락망 확대, 지역별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고위험군 발견 시 원활하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계한다는 방침이다.
자살시도자 대응을 위한 24시간 상시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신설하고, 실제 자살시도 현장에서부터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자살을 차단한다. 2개 기관에 전담인력 12명을 배치, 7월부터 연중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전체 인력을 현재 164명에서 211명까지 확대해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강화와 자살 예방사업 등 도내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반에 걸쳐 내실화를 꾀할 생각이다.

이 밖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방문서비스 인력을 통해서도 우리지역 곳곳에 숨겨진 고위험군 발굴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자살이 빈번한 지역은 보건소, 읍·면·동과 연계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으로 상담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국번없이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로 전화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충북도 '치매극복 온라인 걷기행사' 추진

내달 31일까지... 앱 설치 후 참여

충북도는 충북광역치매센터와 함께 이달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020 한마음 치매극복 충북도민 온라인 걷기행사'를 추진한다.
행사는 9월 1500여명이 참여

해 치를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걷기 캠페인으로 전환했다.
슬로건 '치매에(愛) 희망을 나누다' 캠페인 참여는 걷기 플랫폼인 '워크온'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치매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참여방식은 휴대전화에 '워크온' 앱을 설치한 뒤 충북광역치매센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해 헬런지 시작하기를 누른 다음 휴대 전화를 가지고 걸으면 된다.
목표걸음 30만보(1일 5만보 이하로 제한) 이상 달성자 200명(선착순), 걷기 인증사진과 치매환자·가족에게 희망 메시지를 올린 100명에게 기념품도 준다.

충북도 관계자는 "치매 극복 온라인 걷기는 어디에서든 실천할 수 있는 개인 차원의 활동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걷기운동은 치매 위험을 2.5배 줄일 수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 뇌혈류 개선과 뇌세포의 활동을 촉진해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 데 도움을 준다"고 전했다.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추진... 교육비 무료 진행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생명배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 교육은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개발하였고, 2015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인종프로그램으로 지정되어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생각하

는 사람을 발견하면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대상자의 자살예방을 돕는 사람으로 자살예방에 관심 있는 충북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17시부터 18시까지 1시간동안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단체교육은 일시 및 장소 조율 후

진행하고 있다.
교육 진행 후, 충북 생명지킴이 위촉장 수여식이 있고, 추후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개발한 충북 생명지킴이 활동 웹시스템 '봄봄'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와 활동캠페인 부스 및 심화교육 등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070-4948-9806)를 이용하면 된다.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워킹클린스루' 설치

복지관 이용인 건강·안전 우려... 발열체크 의무화 등 방역 강화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오재원)은 이용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13일 정문 출입구에 전신 소독기 '워킹클린스루' 설치, 방역시스템을 강화했다.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지속되는 시점에서 모든 이용인의 안전을 위한 '워킹클린스루'는 정밀 가공된 노즐과 모션센서를 통해 사람이 통과할 때마다 초미립 안개형태의 인체 무해한 소독액을 분사한다.
분사된 소독액은 안점막 자극

시험을 통과한 치아염소산수를 사용해 인체에 무해하며 소독액과 닿은 부분이 옷에 묻어도 변색, 탈색 등 변형이 발생하지 않고 99.9%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이용인 전체를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37.5도 이하일 경우 정상체온임을 알리는 손목밴드 확인증 시스템과 손 소독기, 구내식당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 사회적 거리두기에 앞장서고 있다.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가 정문 출입구에 설치된 '워킹클린스루'로 전신 소독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검색이 편합니다”

01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고용및직업
- 주거지원
- 보육및교육
- 의료및건강
- 요양및돌봄
- 정신및심리정서지원
- 문화및여가
- 권익보장및법률
- 일상생활지원
- 기타

02 지역을 선택합니다

-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03 생애주기를 선택합니다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성인
- 노인

04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 행정복지센터/노인돌봄서비스/종일/노인
- 노인종합복지관/9988행복나눔미/종일/노인
- 노인요양병원/노인장기요양서비스/종일/노인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명, 이용시간, 이용대상 까지 한번에 검색되는 '충북복지넷'

충북복지넷
www.043w.or.kr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

사회복지 · 보건분야

●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20년 하반기에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만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 추진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인 이동지원(특별교통수단, 주차표지발급)에 대하여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현행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은 유지하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개인의 욕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이동지원 종합조사는 2020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며,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한다(기준중위소득 100%이하→120%이하).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간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해 온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2020년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며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개정내용은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작일(2020년 10월 이후 예정)부터 적용된다.

● 집단생활시설 결핵관리 강화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발생환자 발생 시 통보대상이 외는 관할 기관을 명확히 하여 결핵 전파차단 및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 결핵발생 사실을 관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환경개선과 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 및 대상 확대

2020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금감소생계비 융자한도를 1,000만원 → 2,000만원(소득생계비 200만원 → 5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연동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저소득근로자, 특고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 융자 대상* 및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1,103억원 → 2,103억원, +1,000억원)

*'20.7.1.부터 특고종사자 9개 직종(보험설계사, 레미콘차기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14개 직종 확대(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수출입 컨테이너 · 시멘트 · 철강재 · 위험물질 화물 운송차주 추가)

● 어린이 급식 위생 · 영양관리 지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개소(서울 3곳, 전남 1곳)를 올해 9월 신규로 설치하고, 지원율을 75%에서 90%로 확대한다.

또한, 급식시설이 쉽게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 절차 간소화, 모바일 등록 기능을 마련하는 등 급식시설의 센터 등록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여성 · 육아 · 보육분야

● '여권통문의 날(9월 1일) 법정기념일로 최초 기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일(1898.9.1.)을 기념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9월 1일)'이 올해 처음으로 법정기념일로 운영될 계획이다.

●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이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174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시행일 : 2020년 하반기

<p>Before</p> <p>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만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p> 	<p>After</p> <p>앞으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눈, 흉부(유방) 해당부위에 검사가 필요한 해당 질환자 및 의사 등에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p> 
---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186

희귀·난치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시행일 : 2020년 8월 28일

'20.8.28.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속처리제도가 신설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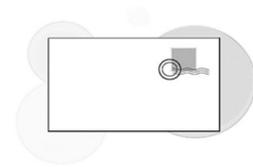


- 맞춤형 심사
- 우선 심사
- 조건부허가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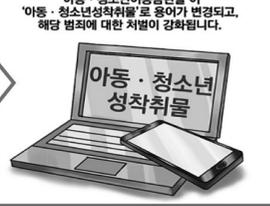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시행일 : 2020년 하반기

<p>Before</p> <p>종전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을 통해 고지하였습니다.</p> 	<p>After</p> <p>'20년 하반기부터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 외 모바일로도 고지합니다.</p> 
--	---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66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시행일 : 2020년 6월 2일

<p>Before</p> <p>'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가 변경되고,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p> 	<p>After</p> <p>'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가 변경되고,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p> 
--	---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80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p>Before</p> <p>지금까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개 직종별로 규정하였습니다.</p> 	<p>After</p> <p>'20.7.1.부터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	--

행정안전부

자세한 내용은 p.59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어린이안전법) 시행일 : 2020년 11월 27일

'20.11.27.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종사자에게 어린이 안전을 위한 응급조치 의무, 안전조치 의무가 부여됩니다.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26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시행일 : 2020년 6월 11일

<p>Before</p> <p>지금까지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p> 	<p>After</p> <p>'20.6.11.부터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군인 재해보상법'이 시행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 순직유족연금 
---	--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로 표현이 변경되고,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판매 · 알선 등의 범죄를 신고한 경우, 해당 범죄가 기초 등의 처분을 받을 시에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청소년 지도사 · 상담사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알선행위 처벌 신설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20일 이후 적용된다.

●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얼 사업 시행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228개소)별 지역사회 다문화활동가로 선발된 다(多)이음 강사들이 지역사회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학교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2020년 9월에 시행된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 · 면 · 동 19세 미만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하여,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되며 2020년 9월에 시행된다.

● 성매매 대상아동 · 청소년의 피해자화 등 아동 · 청소년 성보호 정책 기반 강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 청소년은 이제 더 이상 '대상아동 · 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 · 청소년'이 된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대상이 기존 '아동 ·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성매매 및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역시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명령선고를 받을 수 있으며 2020년 11월 20일 이후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 방문판매원 · 방문교사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기사 ·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2020년 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재보험이 적용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종사자 본인이 적용제의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재해(출퇴근 재해 포함)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출퇴근 재해 적용시점 소급적용('18.1.1.→'16.9.29.)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과정에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이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16.9.29.)에 따라, '17.10.24.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18.1.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도록 개선하여 이번 부칙 개정으로 '16.9.29. 이후 도보, 자전거나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재해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출퇴근 재해 발생 → 산재신청 → 재해조사 실시 → 출퇴근 재해 해당여부 판단(결정) → 보험급여 지급

●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특례 규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된다.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규정 등이 현장실습생에게 준용되며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 및 대상 확대

2020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금감소생계비 융자한도를 1,000만원 → 2,000만원(소득생계비 200만원 → 5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연동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저소득근로자, 특고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 융자 대상* 및 예산을 확대한다.(1,103억원 → 2,103억원, +1,000억원)

*'20.7.1.부터 특고종사자 9개 직종(보험설계사, 레미콘차기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14개 직종 확대(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수출입 컨테이너 · 시멘트 · 철강재 · 위험물질 화물 운송차주 추가)

●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지급 허용

그간 '고용보험법' 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급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된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복지광장

아동학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성혜원

아인성·인권 연구소장

세상은 다양한 폭력 사건으로 시도 때도 없이 들쭉거리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체육계 폭력, 디지털 성범죄 사건, 아동학대, 갑질폭력 등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군분투 하고 있지만 쉽사리 줄어들지 않는다. 특히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아동학대 사건은 연일 발생하고 있어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대학시절 같은 과 단짝 친구는 수제비를 먹지 않았다. 궁금해 하는 내게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는 지금껏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어릴 적 가정폭력을 겪었던 친구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 다음날엔 꼭 수제비를 먹었다고 한다. 취중에 어머니를 폭행하고서 다음날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속풀이용 수제비를 끊이게 한 것이다. 그 사실을 안 친구는 그때부터 수제비를 먹을 수 없었고 지금까지 수제비는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돼버렸다.

친구의 사례처럼 어린 시절 겪었던 가정폭력은 오랜 시간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성인이 된 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2018년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가해자가 친부, 친모인 경우는 전체 77%였다. 아동학대를 재혼 가정과 계부, 계모의 문제로 치부하던 사람들에게 놀랄만한 통계다.

동화 속 콩쥐팥쥐, 신데렐라, 백설공주 등에서 주인공을 구박하고 학대하던 사람은 계모였다. 어릴 적부터 이런 동화를 읽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계모는 나쁜 사람이라고 학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동화는 동화일 뿐 현실은 달랐다. 재혼 가정에서 생부와 생모는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에게 행하는 물리적, 정서적 학대에 동참하거나 묵인 또는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 인천에서 아버지와 동거녀의

학대를 피해 맨발로 2층 가스관을 타고 탈출했던 11살 소녀의 사건 이후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2020년 6월에도 창녕에서 계부와 친모의 학대를 피해 탈출하는 9살 소녀의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었다.

민법 915조(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민법 915조 삭제 운동을 하고 있어서 민법이 곧 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겨준다.

아동학대를 한 상당수 가해 부모 중 한명은 자녀 양육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아동학대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지만 실행 선고는 13.6%뿐이다. 당연히 학대 받지 않은 다른 아이들이 다음 학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 아동의 80% 이상이 원가정 보호 지속 조치를 받는다. 이러한 조치는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 받는 것이 아니라 학대 가정에 방치되는 결과를 갖는다.

원가정 보호 원칙(아동복지법 제 4조

3항)은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가정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보호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해 아동의 학대 모습을 목격한다면 자녀 또한 역시 학대 피해자이다. 부부싸움과 다른 자녀 학대를 지켜보는 것은 정서 학대에 해당한다.

아동은 부모 소유물이라는 인식을 깨고 혈연과 원가정 중심의 사고 방식을 전환해야한다. 아동이 안전하려면 양육자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자녀를 훈육한다며 체벌을 가하는 것은 아이의 인격과 인권을 무시한 폭력이며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를 주는 일이다. 양육자는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라 보호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할 양육자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나아가서 국가는 사회 안전망을 꼼꼼하게 구축해서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주민센터, 사회복지 기관, 마트 등에는 아이가 손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지킴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 순간에도 아동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가 있다는 절박함으로 정책을 펼칠 때 아동학대에 노출된 아이를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건강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연현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모두들 무탈하고 안녕하신가요? 좀처럼 코로나19가 잦아들지 않네요. "코로나19가 좀 누그러지면 하지"라고 미루어왔던 것을 언제까지 미루고 포기해야 하나 답답한 하루하루입니다.

봄에 미루어졌던 지인들의 결혼식이 대부분 이쯤으로 미루어졌는데 봄과 그리움은 달라지지 않았네요. 신랑신부들이 얼마나 아쉬움이 많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네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서 알려줍니다.

반복적인 질문이 얼마나 지겨울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지난 일을 회상하는 것이 불편감을 주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되었습니다. 환자들은 이 질문을 받고 지난 기간을 반추해 보겠죠.

그러나, 정신과 환자들의 지난 기간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특별하게 외출이나 외박을 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고 만나는 사람도 제한적이며 본인들의 활동 역시 제한적입니다. 지난 기간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신과 병원에 가면 이 질문을 제일 먼저 듣게 되니 환자들은 질문에 시큰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기다려준 선생님께 무언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환자편이 돼주어 "그랬군요", "아, 그러셨어요" 한다. 자신의 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한 환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혹은 이주일동안 3~4일은 기분이 좋았고, 3~4일은 기분이 가라앉았다고 상태를 이야기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주치의는 친절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친절하다고 해서 늘 환자 편이 되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주치의의 생각을 이야기 하기도 하고, 환자의 반대편에서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주치의와 상담이나 진료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환자들은 생각을 할까요? "다음에 진료를 볼 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를 잘 지켜보내볼까?"하고.

WHO는 물론 UN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신건강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기존에 정신건강 문제가 있던 환자들은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설의 생활인들만 보아도 정부에서 제시한 감염병 예방 지침에 따라 외박, 외출, 면회도 안 되고 있으며, 외부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끊기고, 상담을 받으려 병원은 말이 꼬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별진료소에 정신과의사들이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신체는 물론 정신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니까요.

정신과 환자들이 병원에 진료를 보러 가면 주치의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혹은 "지난기간은 어떠셨나요?"라고 상담을 시작합니다.

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이 질문을 받는 환자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야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질문을 매일 아침 집 단나는 생활인들에게 하는데 이

현장의 목소리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한국수어통역사와 농인



박빛나

충청북도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팀장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절감하게 되는 요즘, 코로나19 덕분에 세상에 알려진 직업이 있다.

온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수어통역사들에게 집중했다. 집중이 관심이 되고,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화 언어의 구성요소가 얼굴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고 그렇게 수어가 단순한 손짓이 아니라는 인식 개선을 꾀할 수 있었다. 내가 농 복지 현장에서 10년 동안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것들이었는데, 순식간에 퍼졌다.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한편으론 참으로 감사한 때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을 위해 수화언어로 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표현하는 챌린지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면서 직접 수어를 표현해보고, 사진 속 표현이 진짜 #덕분에 라는 뜻은 아니지만 왜 한 손을 받치고 있는 수어로 #존경을 표현하는지 알려지고 있었다. 코로나19 브리핑으로 세상에 나온 한국수어통역사는 그렇게 어디에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갑자기 생겨난 존재들이 아니다. 원래 여기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해도 청각장애인은 절대 고용할 수 없다는 사업주에게 그들도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해내야 하는 취업 현장에서도, 이용자의 아버지 임종을 함께 지켜보며 통역사의 목소리를 통해 마지막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 전해야 했던 의료현장에서도, 오늘만큼은 밥이 하기 싫어서 짜장면을 주문 해 먹고자 했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늘 함께 있었다. 정작 어디에도 없는 것은 농인,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이었다.

오래 우울증을 앓아 온 이용자가 최근에는 치매진단까지 받아 가족들이 곤란한 상황이 되자 요양시설부터 정신보건시설까지 입소 가능한 곳을 알아보고 있으나 여전히 "듣지 못하는 불편으로 인한 의사소통이 문제"가 되어 현재까

지 아무 조치를 못하고 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임시로 머물러야 할 숙소에서 수어 가능한 인력이 없어 아동은 다시 집으로 향한다. 농인의 삶에서 언어의 장벽은 이렇게 전생애적으로 작용된다.

(마서즈 비너드 섬 사람들은 수화라고 말한다) 책에서는 '청각장애인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청력의 부족이 사회적 소외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 (중략)... 의 사소통할 때의 어려움과, 건강 세계에 일반적으로 당연되어 있는 청각장애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정보가 합쳐져 청각장애인의 교육, 고용, 지역사회 참여, 그리고 시민의 권리 등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어려움을 야기시킨다.' 고 소개한다.

***책의 문구를 그대로 가지고 와 '견청'이라 작성했지만 우리는 '청인'으로 정립하여 이해한다.**

예컨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해서 느끼는 무력감, 소외감 같은 것들은 해외여행을 가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이웃임에도 가장 멀어져있는 농인들에게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이미 수어를 국어와 같은 공용어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기관은 '농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수어입니다.' 라는 슬로건

으로 수어를 통해 농인의 행복할 삶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수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면 수어가 농인의 제 1언어로 존중받고 '공용어로 인정받는다' 사회 분위기가 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은 농 사회 안에서 훨씬 더 크고 매우 당연했던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 다행인 것은 2020년 1월 1일부터 충청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례 제정을 먼저 제안 해 주시고 애써주신 이상우 도의원님께서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 4조에서 한국수어발달지원 계획 수립 · 시행으로 충청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조례 한국수어의 사용촉진을 위한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한국수어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어 충청북도 도민이 앞으로 수어 언어를 가까이 느끼고, 많이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여건들이 조성될 것으로 믿고 있다.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 해 왔다. 우리의 일들이 더 이상 특별하게 보이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들께서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존중하고, 농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동반자로서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료 법률호닥터 사업 안내

법률호닥터제도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충청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p>지원내용</p> <p>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알선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입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p>서비스 제공대상</p> <p>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p>	<p>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p> <p>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p>	<p>법률서비스 제공</p> <p>라혜영 변호사(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p>
---	---	--	--

서비스 신청은 시 간 :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 043)238-0843 / 이메일 : hyra21@naver.com
 사무실 :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청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호닥터

법무부 · 충청북도 ·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달의 법률상식



라혜영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저는 2018년 봄에 군대에 입대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상속과 관련된 일은 형님이 알아서 해주라고 하여 그 말을 믿었는데, 제가 군제대 후 확인해보니 부모님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형님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고 남은 재산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속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A) 상속권이 침해상속자(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상속을 받은 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등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상속인으로 형님과 질문자님만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은 동일하게 1:1이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형님을 상대로 질문자님의 법정상속분인 1/2지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 형님을 상대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이 상속재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상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

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위의 사례에서 만약 형이 입의로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처리한 날이 2019.01.01. 이고 질문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군제대 후 2020.01.01.에 알게 되었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인 2020.01.01.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인 2019.01.01.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위 두 기간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므로 최소한 2023.01.01.까지는 형님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023.01.01. 이후에 재판상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각하되므로 소송기간이 경과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봉사단

다사랑회, 한글·한자 교육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다사랑회(회장 김정숙, 이하 다사랑회)는 지난 6일 청주시 우암동 평화상가 새로운교회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한자 교육을 진행했다. 다사랑회는 2013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숙 회장은 "매주 활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대상자들이 삶의 원동력이 되며, 앞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 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n@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복지정보 제공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2020가정폭력상담원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 대상: 가정폭력이나 상담에 관심 있는 사람
접수기간: 2020.6.1.(월)~2020.8.10.(월)
교육기간: 2020.8.17.(월)~9.26.(토) 화/목:18:00~22:00, 토:09:00~18:00
(첫째 주는 월,목,토, 마지막 주는 월,화,목,토)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cjc3007@hanmail.net)
안내 및 제출 서류: 상담소 홈페이지(http://i-web.kr/cjwomens)
문의: 043-268-3007~8

[사피엔스4.0]국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사다리(저씨) 모집안내

- 신청자격: 만10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소득기준 중위소득 50%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모집인원: 연간 5명(연차 별 확대 예정)
모집기간: 상시 모집
지원내용: 1인당 매월 20만원 지원(협의 후 확정)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sapiens.or.kr) 신청서 다운 및 이메일(ocean@sapiens.or.kr) 제출
문의: 사피엔스4.0(070-7005-6077)

[아산사회복지재단]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 'SOS 복지지원사업' 안내

- 대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정부나 민간단체 지원이 신속히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
신청기간: 연중상시
신청방법: 아산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asanfoundation.or.kr) 신청서 작성 이메일접수(asan-sos@amc.seoul.kr)
문의: 02-3010-2566,2585

[사랑의열매&마중물]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참여자 & 업체 모집

- 신청 및 모집기간: 2020.2.10.(월) ~ 2020.12.20.(일)
대상: - 훈련생: 만 15세 이상의 중증정신장애인

- 로 취업의사가 있는 당사자
- 사업체: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지원고용(훈련수당) 지원금 (1인기준)
- 훈련생: 훈련준비금-40,000원 (6일 이상 출석 시 지원), 일비 1일 기준 17,000원
- 사업주: 훈련보조금-1일 19,340원
모집기간: 상시모집
지원고용 훈련기간: 사전훈련(최대6일), 현장훈련(4주~6주), 훈련시간(1일 4~8시간)
주관: 우리들정신건강센터
문의: 043) 267-5835, 285-5835
참고: http://www.woorideul.or.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함께 여는 자동문' 무료자문설치 캠페인 공고

- 접수기간: 상시접수
신청대상: 사회취약층을 위한 시설이라면 제한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코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접수하면 완료
신청방법: 매월 25일 접수 받은 사연을 검토하여 매월 1곳 선정
문의: 1899-7081 또는 coad@coaddoor.com
참고: https://www.bokji.net

[밀알복지재단]2020년 국내장애 및 저소득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지원내용: 장애영유아 의료비, 장애아동 결연의료비, 장애아동 수술비, 안면장애인 수술비, 위기가정 지원
기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중위소득 80% 미만)
신청기간: 2020.3.1.(일) ~ 2020.12.31.(목)
신청방법: 신청서와 구비서류 밀알복지재단 법인메일로 상시접수
제출서류: 홈페이지 참조(http://www.miral.org)
문의: 국내사업부 지원사업 담당자(070-7462-9135)

[여성사회복지재단]함께들서' 도서 무료배포 안내

- 보급대상: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 보급권수: 1기관 최대 2권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hildlovesky@hanmail.net)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도서 보급 공지사항- 신청양식 확인- 이메일 발송
신청기간: 수시
배출관련: 택배비 기관 부담(착불 5,500원)
유의사항: 기존에 신청한 기관은 제외
문의: 여성사회복지재단 사무국 ☎ 02-553-3488

[희망나눔 주주연대]의료·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희귀 난치성 질환, 사고 등으로 인한 수술 또는 재활치료 등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및 다자녀 가정의 성인 가정(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우편 신청
심사 및 선정절차: 1차 서류 심사(검토) 후 선정자에 한해 2차 추가서류 안내 및 가정방문
문의: 희망나눔 주주연대(02-3789-2555) / hope@hopeon.or.kr
참고: https://www.hopeon.or.kr/html/index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바우처 사업

- 지원내용: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이 있는 가구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0.5.27.(수) ~ 12.31.(목)까지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자원 봉사자 모집

- ▶ 프로그램 업무보조
관리센터 :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활동기간 : 7.1 ~ 8.31
전화번호 : 043-845-7505
▶ 밀반찬 배달 봉사
관리센터 : 증평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 7.1 ~ 8.31
전화번호 : 043-835-4288
▶ 중증장애인 버킷리스트 봉사
관리센터 : 늘푸른아동원
활동기간 : 7.1 ~ 8.31
전화번호 : 043-845-4544
▶ 이마용 봉사
관리센터 : 소망원
활동기간 : 7.1 ~ 8.31
전화번호 : 043-253-7763

- ▶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관리센터 : 청주내덕노인복지관
활동기간 : 7.1 ~ 8.31
전화번호 : 043-216-9811
▶ 초중고생 학습지도
관리센터 : 그린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 7.1 ~ 8.31
전화번호 : 043-855-7878
▶ 저소득 가정 11 멘토링
관리센터 :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기간 : 7.1 ~ 8.31
전화번호 : 043-857-5960
▶ 원예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 7.1 ~ 8.31
전화번호 : 043-284-0103

- ▶ 도서관 도서 정리
관리센터 : 충청북도교육도서관
활동기간 : 7.1 ~ 8.31
전화번호 : 043-267-4590
▶ 문화예술 공연 봉사
관리센터 : 수정노인의집
활동기간 : 7.1 ~ 8.31
전화번호 : 043-218-3436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자료출처 : www.vms.or.kr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사업기간: 2020. 6. 22. ~ 12. 31.
사업대상: 23가 다당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기관: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지원내용: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방문 시 예방접종 행동수칙

복지/만/평 상처
이창신 www.bokmani.com
가시 동친 말로는 사랑을 전할 수 없듯이
사랑해
상처 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